

부산·경남·울산

동남지역 공업벨트 '가야밸리' 조성 급물살

부산·경남·울산 등 동남지역 공업벨트의 연구개발 중심지가 될 가야밸리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시는 신산업과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필요한 첨단 과학기술 연구기능을 갖춘 66만㎡ 규모의 가야밸리를 부산·경남 인접지역에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3조 500억원, 부산과 경남이 각각 1조 5500억원 등 총 6조 1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12년까지 가야밸리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야밸리는 국내 최대 항만물류도시이자 인적자원이 풍부한 부산과 제조업이 강한 울산·경남의 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광역권 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정부의 '동남권 클러스터'와 연계돼 추진된다. 시는 가야밸리에 연구기관을 대거 설립하고 외국 부품소재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과 부품소재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연구기관들은 원천기술과 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천안

천안밸리에 정밀가공지원센터 설립

벤처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충남 천안밸리에 반도체를 가공할 수 있는 '정밀가공지원센터'가 세워진다.

충남테크노파크(본부장 이종현)는 14일 "반도체 관련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천안밸리에 5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 건축면적 2475㎡ 규모의 정밀가공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2월 말 착공, 오는 8월 문을 여는 이 센터는 측정장비와 측정기기, 초정밀 가공장비, 3차원 측정장비, 특수 공작기계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천안밸리 내 반도체관련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할 예정이다.

광주

광주에 光장비 구축 활발

광주지역 광산업 집적화단지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광관련 장비구축사업이 활발하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한국광기술원, 전남대광기술교육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광기술특화연구센터 등 광산업 육성 지원기관들은 광통신·광원 등 광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500여종의 핵심장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올해와 내년에도 첨단 장비 및 시설 구축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관련업체들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육성, 창업보육지원사업에 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광기술원은 150여억원을 들여 초정밀 미세가공 제조와 비구면 광학설계, 소자설계 등을 위해 비구면과

자유곡면 가공기, 다이아몬드 터닝머신, 형상측정기인 레이저 인터페로미터시스템, 비접촉식 표면조도(거칠기)측정기 등 70여종의 장비를 구축했다.

또 내년까지 모두 260억원을 투입해 계속 시험인증과 시험생산에 필요하면서 중소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첨단 고가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광기술원 최상삼 원장은 "광산업 육성의 핵심인 기업육치와 함께 장비구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광관련 장비가 집적화될 경우 연구기관·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등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